

공연전시소개

7월의 공연



musical

첫사랑, 그 애뜻한 그리움을 향해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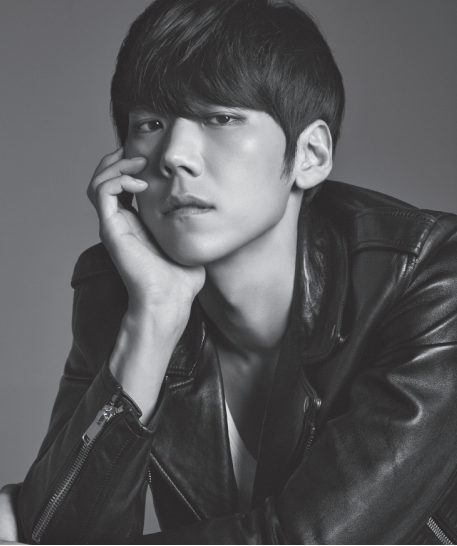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이하는 세종문화회관의 '2018-19 세종시즌' 공연으로 5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가 무대에 오른다. 무엇으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기억 속으로 뛰어든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선사하는 음악과 시, 공간을 뛰어넘는 독특한 감성으로 더욱 깊어진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녀가 뛰어든 것은 우산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1983년 여름,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산에 뛰어든 태희 역에는 임강희와 김지현이, 태희와 안타까운 이별을 한 후 그녀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우 역에는 강필석과 이지훈이 각각 캐스팅됐다. 인우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으로 작은 습관부터 말투까지 태희를 똑 닮아 인우

를 혼란스럽게 하는 현빈 역은 최우혁과 이휘종이 연기한다.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를 조금 더 빨리 만나 볼 수 있는 미니콘서트도 개최한다. 작품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콘서트로 오는 5월 2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진행되며, 약 1시간동안 뮤지컬 주요 넘버와 강필석, 이지훈, 임강희, 김지현 등 배우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마련된다.

6.12-8.26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그대, 신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초연과 재연, 연달아 흥행가도를 달리며 누적 관객 24만명으로 한국 창작



뮤지컬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캐스팅 발표 당시부터 화려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며, 1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예매율 1위에 오르며 흥행 신화를 이끌어낸 류정한, 전동석, 박은태, 한지상, 서지영, 안시하, 이희정, 김대중 등을 필두로 민우혁, 카이, 박민성, 박혜나, 이지혜, 이정수 등 새로운 캐스트들이 합류해 작품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철학, 과학, 의학을 모두 아우르는 지식을 갖춘 천재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강한 집념을 지닌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을 맡은 류정한, 전동석, 민우혁은 캐릭터 포스터에 서로 다른 빅터를 오롯이 담아내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류정한은 단단하고 깊은 눈빛으로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해 눈길을 끈다. 전동석은 우수에 찬 눈빛으로 복합적인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민우혁은 카리스마적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박은태, 한지상, 카이, 박민성도 앙리로의 완벽 변신을 예고하는 캐릭터 포스터로 화제를 모았다. 박은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눈빛으로, 한지상은 이상을 가득 담은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카이는 굳건한 신념의 눈빛으로, 박민성은 고뇌에 잠긴 강렬한 눈빛으로 앙리를 연상시키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6.20-8.26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B급 좀비, A급 열연 뮤지컬 <이블데드>

코미디와 컬트, 호러의 결정판인 B급 좀비 호러

뮤지컬 <이블데드>가 더 막강해진 캐스트와 강력해진 무대로 돌아온다. 동명의 B급 공포 영화 이블데드 시리즈 중 1,2편을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숲 속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난 대학생들이 좀비와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B급 코미디 좀비 호러 뮤지컬이라는 신선한 장르로 언론과 뮤지컬 마니아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1년여 만에 돌아오는 뮤지컬 <이블데드>는 영화를 기반으로 한 탄탄해진 스토리텔링과 함께 지난해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던 좀비 분장을 대폭 강화하여 디테일한 모습으로 더 리얼하고 파격적인 좀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손지은 연출과 신선호 안무가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팀으로 합류, 이준 음악감독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성실한 종업원으로 매너남 애쉬 역에는 강정우, 김대현, 서경수가 합류하여 애쉬와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애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난히 여자를 밝히는 스캇 역은 우찬과 유권(블락비)가 나누어 맡는다. 야망 있는 고고학자 애니 역과 스캇이 3일 전에 꼬신 여인 셸리 역으로 상반되는 캐릭터의 1인 2역은 김려원과 최미소가 함께 새로운 매력의 캐릭터를 보여 줄 예정이다. 애쉬의 여자친구 린다 역에는 김히어라와 서예림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애쉬의 괴짜 여동생 세릴 역에는 김리와 송나영이 캐스팅 되었다.

6.12-8.26 유니플렉스 1관



제3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CHIMFF 2018)

8개 섹션, 35편 작품 등

제3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가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충무아트센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등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흘간 펼쳐진다. 충무로뮤지컬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7천원에, 영화와 공연이 결합한 작품은 1만원에 볼 수 있으며 DDP 야외 상영은 모두 무료다. 배우 한지상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올해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깊이 있는 고전과 감각적인 신작들을 중심으로 영화와 뮤지컬 두 장르가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 폭넓은 시선을 프로그램에 담았다. 충무로뮤지컬영화제는 충무로라는 한국영화 역사의 중심에서 고전을 재해석하고 뮤지컬전문극장인 충무아트센터의 공연예술 인프라를 활용해 차별화된 영화제를 만들자는 시도로 탄생한 이색적인 영화제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의 웅장한 사운드와 대형 스크린으로 쉽게 접하기 힘든 뮤지컬 공연의 라이브 영상을 선보이기도 하고, 코러스와 함께 영화 속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얼롱(SING ALONG)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뮤지컬영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개막식은 7월 6일 저녁 7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배우 오만석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3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 개막작 <씨네라이브: 손에 손잡고>는 임권택 감독, 도올 김용옥 각본(내레이션)의 1988년 서울 올림픽 다큐멘터리

필름에 라이브 공연을 더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이다. <씨네라이브: 손에 손잡고>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지향했던 평화의 의미를, 2018년 새로운 기류 속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올해 22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이 2018년 7월 12일(목)부터 7월 22일(일)까지 11일간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영화 전담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남미와 유럽, 아시아 지역 전담 프로그래머 체제를 통해 전 세계 판타스틱 장르영화의 최신 트렌드와 산업적 방향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총 53개국 290편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막작은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한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운 감독과 이춘백 감독이 만든 두 번째 작품, <언더독>이다. 폐막작은 애드바이트 찬단 감독의 데뷔작이자 최근 개봉한 <당갈>의 주연이기도 한 아미르 칸의 <시크릿 슈퍼스타>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인도영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뉴미디어는 작년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로 VR Village를 조성해 세계 영화계의 뜨거운 화두인 VR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호평 받은 국내의 작품의 균형을 통해 동시대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관객과 호흡하는

페스티벌의 장을 마련해 부천시 청사와 주 상영관인 CGV부천, CGV소풍 그리고 한국만화박물관과 솔안아트홀 등의 상영관을 포함시켜 시민들과 관객들에게 편리하고 친근한 축제 공간을 마련한다.

제15회 평창대관령음악제

- 다양성 주제로 '멈추어, 묻다'(Curiosity)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4일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콘서트홀 등 강원도 일대에서 열린다. 2004년 동계올림픽에 맞춰 처음 시작한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올림픽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 지난해까지 음악제 예술감독을 맡았던 첼리스트 정명화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자매에 이어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예술감독을 맡아 첫 번째 음악제를 펼친다.

이번 음악제의 주제는 '멈추어, 묻다'(Curiosity)로, 특정 작곡가나 유럽 특정 지역을 주제로 정했

던 과거 음악제와 달리 다소 추상적이다. 손열음 예술감독은 "클래식 음악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추상성"이라며 "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상도 가능하고 그것이 클래식의 장점"이라고 밝혔다. 음악제 기간 연주되는 52곡 중 6곡을 제외한 나머지 46곡은 지난 14년간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단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는 곡이다. 펠릭스 바인가르트너 지휘로 초연되는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베토벤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합머클라비어 소나타' 역시 한국 초연이다. 다양성을 화두로, 이전 음악제에서 실내악 위주로 연주했다면, 이번 음악제는 리사이틀과 교향악 등 여러 장르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다. 또한, 음악제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 단원들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구성한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은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였던 러시아의 드미트리 키타옌코가 잡는다.

Classic

뜨거운 여름, 스페인의 낭만과 열정이

숨쉬는 유쾌한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Don Quixote>

충무아트센터(사장 김승업)는 오는 7월,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의 <돈키호테>를 선보인다.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루드비히 밍쿠스(Ludwig Minkus)의 음악과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의 안무로 1869년 러시아 볼쇼이극장에서 초연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스페인의 낭만과 정열이 돋보이는 밝고 경쾌한 희극 발레로 많은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온 작품이다.

충무아트센터는 2014년부터 유니버설발레단과 손을 잡고 매년 여름 '명품발레시리즈'를 개최해왔다. 2015년 <잠자는 숲속의 미녀>, 2016년 <지젤>, 2017년 <백조의 호수>까지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매

진 행렬을 기록했다. 여름시즌마다 충무아트센터를 아름다운 춤의 향연으로 물들인 '명품발레시리즈'에서 유니버설발레단이 가장 처음 선보였던 작품은 다름아닌 <돈키호테>다. 2014년 이후 4년만에 다시 충무아트센터에서 만나게 될 발레 <돈키호테>는 티켓오픈과 동시에 장르 랭킹 1위를 차지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톡톡 튀는 매력의 '키티리'역에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강미선, 홍향기, 조이 아나벨 위막과 솔리스트 예카테리나 크라시우크가 캐스팅되었다. 또한 재치 있는 이발사 '바질'역은 유니버설발레단의 간판 스타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이동탁, 강민우, 이현준이 출연하여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신선한 조합의 <돈키호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7.20-22 충무아트센터